

# 전남도, 여수석유화학 고용위기 극복 총력...협의체 발족

노·사·민·정 전문가 참여...소비 감소·상권 위축 등 해결 방안 마련  
플랜트산업 종사자 1만5000명→2000명...고용위치지역 지정 추진

전남도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협의체를 발족했다.

전남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수 석유화학산업이 글로벌 공급 및 경쟁력 약화로 위기를 맞으면서 고용까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석유화학 대기업의 부진으로 하도급업체인 여수지역 플랜트 업체들의 불황도 깊어지고 있다. 한 때 1만5000여명 수준이던 여수지역 플랜트산업도 종사자가 최근 2000여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플랜트기업들의 발족은 크게 석유화학 공장 설비를 일정기간 경과시 보수하는 '대정비'와 신중설 공사로 구분된다.

하지만, 가동을 중단한 공장이 늘어나면서 대정비 일감이 많이 줄었고, 신중설 공사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장치산업 특성상 설비 유지보수에 의존적인 플랜트산업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원료가 되는 원유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수익성이 악화돼 위기를 맞았다. 기업들의 누적 영업손실만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8일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전남도의회,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시 등과 산업계, 노동계, 지원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여수산업단지협의회,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산업 공동발전협의회 등 사업자측과 한국

노총여수지역지부,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지부 등 노동자 단체도 참여했다. 또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본부, 전남테크노파크, 전남도의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여수산업단지 플랜트 산업의 축소로 지역 주민의 소비 감소 및 지역상권 위축으로까지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위기극복 방법으로 이달 중 정부에 '고용위치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위치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에게 휴직수당 90%와 직업훈련비를 추가 지원해주고 고용보험료 등 납부 기간을 연장해준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한도액 인상 등 혜택과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협의체는 여수산업단지의 특수성이 포함된 고용위치지역 지정 신청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의 현실사태에 대비해 기관별 역할, 대응요령, 분야별 객관적 자료 등도 준비할 계획이다.

협의체 고문역을 맡게 된 전남도의회 이광일(민주·여수1) 부의장과 주종섭(민주·여수6) 도의원은 "고용유지가 불안한 중소플랜트 업체 노동자의 고용이 지속되도록 정부 지원사업에 노동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보건의 날 기념행사...“국립의대 설립 염원”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광양 포스코 광양백운아트홀에서 열린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단독주택에도 미니태양광 설치하세요”...광주시, 보조금 지원

11월 30일까지 선착순 신청  
자부담 비율 30%→20%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시가 올해부터 단독주택에도 주택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희망 세대에 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2045 탄소 중립 전환사' 실현을 목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은 물론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단독주택도 신청할 수 있다. 자부담 비율도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들었다. 기존 설치세대에 추가설치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됐다.

미니태양광(390~445W) 1개 설치비는 84만원~95만원으로, 광주시가 80%의 보조금을 지원해 신청가구는 20% (16만8000원~1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지 내 다수 세대가 참여할 경우 세대당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8~9% (6만8000원~9만원)의 자부담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일반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약 307kWh (6만9000원)로,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월 45kWh 내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900L 냉장고 1대 전기소비량(약 46kWh/월)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로, 월 8000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5년 광주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세대 모집공고'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나 소유 예정자여야 한다.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의 설치 동의를 받고, 발코니 및 경비실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우수한 일조권 장소를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07세대에 미니태양광 설치(30억원)를 지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남도, 친환경차 기반 '넷제로 시티' 실증 추진

2026년까지 29억 5000만원 투입

전남도의 친환경 자동차 기반의 '넷제로 시티' (Net Zero City) 실증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 기반 넷제로 시티 실증사업은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해 권역 내 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남도 넷제로 실증사업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6년까지 총사업비 29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전력 생산량의 변동성, 공급 과잉 및 부족 현상 등 전력 관리의 어려움이 꾸준히 지적됐다.

실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기반으로,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4월부터 추진 중이다.

전기차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시 건물이나 시설에 재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활

용하는 효율적 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이 핵심이다.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 이동 장치로 삼아, 전기차 배터리 내에 남아있는 에너지를 건물 및 시설에 팔고, 전기차 운전자는 전기가 과잉생산될 때 싼 값에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구조다.

전남도는 전기차와 전력망 간 양방향 에너지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V2G' (Vehicle to Grid) 기술을 활용한다.

전남도는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전기차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기능하며, 전력망 안정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 광주시, 데이터 활용해 '똑똑한 농사' 짓는다

올해 스마트팜 농가 14곳 지원

광주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농사를 짓는 스마트팜(SMART FARM) 농업인을 지원한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지역특화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현장 실증 3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3기로 토마토·고추 사업을 4월부터 2027년 5월까지 2년 간 진행한다. 앞서 2023년 1기에는 토마토·딸기, 2024년 2기에는 가지·고추 사업이 진행됐다. 올해 사업에는 토마토·고추 재

배 농가 14곳이 참여한다.

농업기술센터와 참여농가는 이날 스마트농업교육관에서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실증사업의 추진 절차, 생육조사 요령, 데이터농업연구회 활동에 대한 실무중심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에 데이터 수집, 품질 관리, 기자재 활용 교육, 재배기술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한다. 농가는 생육정보를 수집·분석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을 높인다.

농민들은 이 기간동안 온실에 센서를 설치해 생육 및 환경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생산성 향상

요인을 도출해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연구를 수행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데이터농업 역량이 강화되고, 작물별 최적 생육환경에 대한 데이터 기반 기술 축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기 실증사업을 통해 생육 단계별로 수집된 환경·생육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배관리를 최적화할 경우 작물 수확량 증대와 품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2기 고추 재배 농가에서는 토양 수분, 온도, 전기전도도(EC) 등 주요 생육환경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재배 관리로 낙과 방지, 수량 증대 등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